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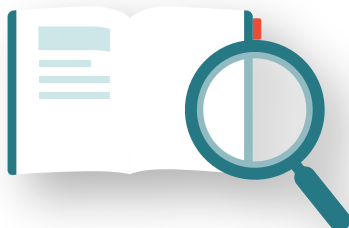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

〈일러두기〉

이 책자는 남북 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북한의 어휘와 표현을 간단히 소개한 자료집입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비교하였으며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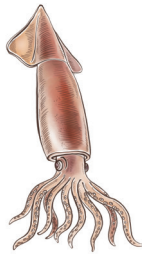
1. 같거나 비슷한 말은 빗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예) 가락지빵/도나트
2.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소괄호 안에 보였습니다.
(예) 손전화(기)
3. 남한 용례 앞에는 (남)을, 북한 용례 앞에는 (북)을 붙였습니다.
4. 제시한 용례의 띄어쓰기는 남한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1. 남북의 어휘 비교

(1)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



남 : 오징어

북 : 낙지

남북은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고, 낙지를 북한에서는 ‘서해낙지’라고 부릅니다.

남	북
가스레인지	가스곤로
가출	탈가
개고기	단고기
교감	부교장
교도소	교화소
나이테	해돌이

남	북
냉장고	랭동기
다이어트	살까기
데이트	산보 ¹⁾
도넛	가락지빵/도나트
돌고래	곰등어
맞벌이 가정	직장세대
멜로디언	입풍금
무빙워크	자동복도
박스	지함
법원	재판소
볼펜	원주필
불법	비법/불법 ²⁾
사인/서명	수표
상추	부루
상호	호상 ³⁾
샤프(펜슬)	수지연필/샤프연필
서랍	빠람/서랍
소시지	칼파스/꼴바싸/고기순대
스마트폰	타치/지능형손전화(기)
식목일	식수절
싱크대	가시대
싸다	눅다/싸다 ⁴⁾
아이스하키	빙상호케이

1) '데이트하다'를 북한에서는 '산보하다'라고 함.

2) 북한에서는 '비법'을 많이 씀.

3) '상호 간'을 북한에서는 '호상간'이라고 함.

4) 북한에서는 '가격이 싸다'보다 '가격이 눅다'를 많이 사용함.

남	북
양계장	닭공장
에너지	에네르기
에스컬레이터	계단승강기/자동계단
에어컨	랭풍기
와이퍼	비물닦개
우체국	체신소
잼	(과일)단졸임/짬
전기밥솥	전기밥가마
주민등록증	공민(등록)증
진공청소기	흡진기
(TV) 채널	통로
초등학교	소학교 ⁵⁾
컨테이너	짐함
컵	고뿌
태블릿(피시)	판형컴퓨터
파우더	돌분
팝콘	강냉이튀기
플러그	꽃개
피망	사자고추
학과장	강좌장
한반도	조선반도
한복	조선옷
해고지	남잡이
헌병	경무원
헤딩슛	머리받아넣기
화장실	위생실

5)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북한에서는 각각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부름.

남	북
화장지	위생종이/위생지
휴대폰	손전화(기)
구설수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싸가지 없다	도덕 없다

남북의 형태가 다른 어휘 중에는 맞춤법, 한자어 발음, 외래어 표기법이 달라서 표기가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남	북
갈치	칼치
거북이	거부기
날짜	날자
너근하다	넉근하다
넌따랗다	넛다랗다
넙적다리	넵적다리
눈썹	눈섭
닭달	닥달
드디어	드디여
색갈	색갈
섬부르다	서뿌르다
설거지	설것이
손뻑	손벽
숨바꼭질	숨박꼭질
아내	안해
안스럽다	안스렵다
약삭빠르다	약삭바르다
오류	오유
올바르다	올바르다

남	북
왜곡	외곡
외치다	웨치다
우레	우뢰
우스꽝스럽다	우습강스럽다
웁큼	웅큼
(불구대천의) 원수	원수
의식주	식의주
이빨	이발
일꾼	일군 ⁶
줍다	줏다
짓궂다	지궂다
폐	페 ⁷
핑계	핑계
발취(拔萃)	발취(拔萃)
취장(脾臟)	취장(脾臟)
퇴고(推敲)	추고(推敲)
라디오	라지오
마라톤	마라손
바이러스	비루스
샤워	샤와
캠페인	깜빠니아
타이어	다이야

6) '-꾼'을 북한에서는 '-군'으로 적음.

(남) 나무꾼, 잔소리꾼, 총꾼
(북) 나무군, 잔소리군, 총군

7) '페'를 북한에서는 '페'로 적음.

(남) 노폐물, 폐교, 폐백, 폐업, 화폐
(북) 로페물, 폐교, 페백, 페업, 화페

남	북
토마토	도마도
탱크	땅크
핑크	뱅크
피자	삐짜

(2)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어휘

사무실에서

남 : 커피 드실래요?

북 : 일 없습니다. (사양의 의미)

식당에서

남 :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북 : 일 없습니다. ('괜찮다'의 의미)

남북 어휘 중에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나 용법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없다'는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의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가벼운 사양의 뜻이나 '괜찮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휘	설명
극성스럽다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남) <u>극성스러운</u> 팬 때문에 힘들다. (북) 일숨씨가 어찌나 <u>극성스럽고</u> 빨랐던지 해놓은 일이 여간만 탐탁하지 않았다.
극장	남한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가리키지만 북한에서는 '연극, 음악, 춤' 등을 공연하는 곳을 '극장'이라고 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영화관'이라고 하여 둘을 구분합니다.
까지다	남한에서는 '학생이 까졌다'고 하면 '학생이 되바라졌다'의 의미지만 북한에서는 '학생이 (살이) 빠졌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높은이	남한에서는 '높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높은 사람'을 중립적으로 가리킬 때 씁니다. 남한과 달리 비하의 뜻이 없습니다. (북) <u>높은이</u> 와 젊은이 / <u>높은이</u> 들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품성이다.
문란하다	북한에서도 도덕,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해 사용되지만 남한과 다른 문맥에서도 쓰입니다. (북) 교실이 <u>문란하다</u> . (=질서가 없다) / 3학년 1반 줄이 <u>문란하다</u> . (=줄이 안 맞다)
바쁘다	북한에서는 '겨울이 없다'의 의미 외에 '힘들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북) 요즘 공부하기가 <u>바쁘다</u> .

어휘	설명
방조하다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남) 그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북) 항해사는 선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배의 항행 보장을 맡아 수행하는 일꾼이다.
배우	남한에서는 연기자만 배우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성악 배우), 서커스를 하는 사람(교예 배우) 등도 배우라고 부릅니다.
사변	남한에서는 역사적, 부정적 사건에 주로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일상적, 긍정적인 경우에도 쓰입니다. (북) 철길 개통은 커다란 사변 이었다
살찌다	남한에서는 동물과 사람에게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주로 동물에게 사용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흔히 '몸이 나다'를 사용합니다. (남) 요즘 내가 살찌서 옷이 작다. (북) 돼지가 피동피동 살찐다 .
소행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남) 범죄자의 소행 (북) 아름다운 소행
야근	남한에서는 밤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밤낮 교대로 일하는 경우 밤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 요즘 야근 이 많아 힘들다. (북) 나는 낮에 일하는 것보다 야근 이 좋다.

어휘	설명
여위다	남한에서는 주로 윗사람에게 쓰지만 북한에서는 동물이나 자기보다 아랫사람, 혹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씁니다. 북한에서는 윗사람에게 '축이 가다'를 사용합니다. (남) 선생님, 그동안 <u>여위셨네요.</u> (북) 강아지가 훌쩍하게 <u>여위었다.</u>

(3) 국가명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	북
네덜란드	네데를란드/화란
덴마크	단마르크
독일	독일/도이칠란드
동티모르	동부띠모르
러시아	로씨야
루마니아	로므니아
멕시코	메히꼬
모로코	마로끄
미얀마	만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슈
베트남	월남
벨기에	벨지끄
세르비아	쓰르비아
스웨덴	스웨리에

남	북
슬로바키아	슬로벤스꼬
아랍에미리트	아랍추장국
아이슬란드	이슬란드
자메이카	저메이커
체코	체스꼬
캄보디아	캄보자
크로아티아	흐르바쯔카/흐르바찌야
터키	토이기/튀르크kiye
튀니지	튀니지
포르투갈	쁘르뚜갈
폴란드	쁠스카
헝가리	웁그리아/마자르

2. 남북의 언어예절 비교

(1) 경어법

○ 존칭 표현의 제한적 사용

북한에서 여사(女士), 맥, 가계(家系), 자제(子弟) 등의 말 들은 김일성과 그 가계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께서’나 ‘-님’, ‘-시-’ 같은 존칭 표현들도 김일성과 그 가계를 높일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외의 인물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됩니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존칭 표현들을 남한에 비해 덜 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식사했습니까?”는 ‘-시-’가 들어가지 않아 남한에서는 무례하게 들리지만 북한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 ‘-ㅂ시다’의 용법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권할 때 쓰는 ‘-ㅂ시다’의 용법에도 남북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 ‘-ㅂ시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분에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버지, 집에 갑시다.”, “선생님, 식사합시다.”처럼 나보다 높은 분에게도 쓴다고 합니다. 즉 북한에서 ‘-ㅂ시다’는 남한의 ‘-시죠.’나 ‘-실까요?’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말

○ “그새 앓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새 앓지 않았습니까?”를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새해를 축하합니다.”

남한에서는 연말연시의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래 오래 앉아 계십시오.”

북한에서는 “오래 오래 앉아 계십시오.”가 장수를 기원하는 인사말로 쓰입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웃어른의 생신을 축하하는 경우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축하합니다.”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생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생일을 축하합니다/축하드립니다.”와 같이 인사합니다.

(3) 호칭어·지칭어

○ 형태가 달라진 친족 호칭어·지칭어

▶ 호칭어(부름말)

대상	남	북
오빠의 아내	새언니/언니	형님/오레미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동생/누이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서방님/ 삼촌	적은이/삼촌
언니의 남편	형부	아저씨

▶ 지칭어(가리킴말)

대상	남	북
남편	남편	남편/세대주
장인	장인/장인어른	장인/가시아버지
장모	장모/장모님	장모/가시어머니

○ 의미가 달라진 친족 호칭어·지칭어

호칭어·지칭어	남	북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형’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연배의 지인(친족이 아닌 사람)’도 ‘큰아버지’라고 부름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아내	‘큰아버지의 아내’뿐만 아니라 ‘큰이모’, ‘큰어머니 연배의 지인(친족이 아닌 사람)’도 ‘큰어머니’라고 부름

○ 사회생활 호칭어·지칭어

▶ ‘동무’, ‘동지’가 붙은 호칭어·지칭어

북한에서 ‘동무’, ‘동지’는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공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나이, 지위가 높을 때 ‘동지’를, 비슷하거나 아래일 때는 ‘동무’를 사용합니다.

- 이름+동무/동지: 철수 동지, 영숙 동무 등
- 직위+동무/동지: 지배인 동지, 부원 동무 등
- 직종+동무/동지: 운전수 동무, 접대원 동무, 리발사 동무 등
- 일반 단어+동무/동지: 남성 동무, 녀성 동무, 녀동무, 처녀 동무, 어린 동무 등

▶ ‘선생(님)’이 붙은 호칭어·지칭어

북한에서 교원, 학자, 의사 등의 정신노동 종사자에게는 ‘동무’, ‘동지’가 아니라 ‘선생(님)’을 붙여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선생’이라는 낱말 그 자체에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측과 달리 ‘-님’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	북
원장님	원장 선생(님)
소장님	소장 선생(님)
교수님	교수 선생(님)
기자님	기자 선생(님)
작가님	작가 선생(님)
박사님	박사 선생(님)

▶ ‘아바이’

남한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뜻으로, 북한에서 잘 아는 남자 노인을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초면이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

‘아바이’를 사용하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직장장 아바이, 평양 아바이, 운전사 아바이, 덕삼 아바이 등

▶ ‘아가씨’

남한에서는 결혼할 나이의 젊은 여성을 부르는 말로 흔히 쓰이나, 북한에서 ‘아가씨’는 유흥업소 접대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에서는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화법(감사, 거절, 사과, 요청, 빈말)

○ 감사하기

“남한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회사에서

- 남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과 통화하며) 감사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 남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이 도착하자) 날도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북 학철: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함) ‘별로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 고맙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상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남한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남한 사람들을 보며 ‘왜 이런 것까지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지?’라고 처음에는 의아해한다네요.

○ 거절하기

“돌려서 거절하는 남한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 북 학철: 이거 수요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 남 민정: 아, 제가 해 드리고 싶은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찌죠?
- 북 학철: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함) ‘해 준다는 기야, 말겠다는 기야?’

남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하지 않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만을 말하거나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거절의 말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처럼 약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와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는 것이 솔직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에서는 ‘안 된다’, ‘싫다’, ‘못 한다’라고 분명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비해 많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거절 표현이 다르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권할 때 사양하는 말로 남한에서는 주로 ‘괜찮다’를 쓰지만 북한에서는 ‘괜찮다’보다는 ‘일없다’, ‘됐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일없다’는 남한의 ‘괜찮다’처럼 정중한 사양의 말인 셈입니다.

○ 사과하기

“북한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여 남한에 비해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상대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북한이라면 사과를 안 해도 될 상황에서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사과하는 말도 남한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 요청하기

“북한에서 이런 말투는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남한에서 ‘-시오’, ‘-오’, ‘-라’와 같은 말투는 대화 중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지 마시오.”, “여기에 들어가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 또는 알림의 글에서 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책 좀 빌려 주시오.”, “창문 좀 열라.”처럼 상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시오’, ‘-오’, ‘-라’가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나에게 부탁한다기보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북 학철: 저, 과장님....

남 과장: 무슨 일입니까?

북 학철: 오늘 저 일찍 갈 수 없겠습니까?

남 과장: 일찍 간다고? 근데 자네 말이 왜 그런가? 뭐 불만 있나?

위의 상황에서처럼 물음형으로 요청의 말을 하는 경우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 가면 안 됩니까?”, “볼펜 좀 빌려 줄 수 없습니까?”와 같은 부정형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부탁한다기보다는 따지는 듯한 인상을 주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 역시 북한 사람들에게는 정중한 요청 표현이라고 합니다.

○ 빈말(인간관계를 위해 관습적으로 하는 말)

“밥 한번 먹자’ 해 놓고 왜 연락을 안 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술 한잔 해요’, ‘밥 한번 먹자’, ‘전화할게’와 같은 빈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말을 끝이듣고 연락을 기다리다 실망하기도 한다는데요, 나중에서야 이런 말이 약속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말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3. 맞춤법

두음법칙

남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맞춤법이 두음법칙입니다. 남한의 맞춤법에서는 첫소리가 ‘ㄴ, ㄹ’인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현실 발음에 따라 ‘ㄴ, ㄹ’이 탈락되거나 변한 소리대로 표기합니다. 반면에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이건 아니건 어느 경우에도 일정하게 한자의 본음 ‘ㄴ, ㄹ’을 밝혀 표기합니다.

	남	북
女子	여자	녀자
年歲	연세	년세
紐帶	유대	뉴대
匿名	익명	닉명

	남	북
良心	양심	량심
歷史	역사	력사
禮儀	예의	례의
流行	유행	류행
理髮	이발	리발

	남	북
樂園	낙원	락원
來日	내일	래일
老人	노인	로인
樓閣	누각	루각
腦性	뇌성	뢰성

사이시옷

남한에서는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소리가 덧나더라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남	북
깨 이 얌	깨 이 얌
등 곳 길	등 교 길
바 닷 가	바 다 가
콧 물	코 물
햇 빛	해 빛
깃 발	기 발
피 줄	피 줄



4. 문장 부호

남북이 사용하는 문장 부호 중에는 이름이나 용법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부호	남	북
.	마침표/온점	(끝)점
,	쉼표/반점	반점
:	쌍점	두점
/	빗금	빗선
“ ”	큰따옴표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대신 비슷한 용법을 가진 인용표 《 》를 사용함. (북) 동무는 《내가 이겼지.》라고 말했다.
‘ ’	작은따옴표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대신 비슷한 용법을 가진 거듭인용표 〈 〉를 사용함. (북) 동무는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고 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가운뎃점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소괄호	쌍괄호
{ } ⁸⁾	중괄호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⁹⁾	대괄호	꺾쇠괄호

8) 북한에서는 { }가 수학 기호로 사용될 때에는 '대괄호'라고 함.

9) 북한에서는 []가 수학 기호로 사용될 때에는 '중괄호'라고 함.



5. 숫자 읽기

남한에서는 외래어 단위 앞의 숫자를 한자어로 읽지만 북한에서는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로 읽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남	북
1m	일 미터	한/일 메터
2g	이 그램	두/이 그람
10kg	십 킬로그램	열/십 키로그램

그리고 북한에서는 숫자 '0'이 들어간 수를 읽을 때 '0'을 '공'으로 읽기도 합니다.

	남	북
105호	백오 호	백공오 호/백오 호
2018년	이천십팔년	이천공십팔년/이천십팔년

〈참고문헌〉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7).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 용어.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원(2017). 온라인 강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국립국어원.
- 권순희, 강보선, 박진희, 양수경, 이수연, 이슬비(2014). 통일 시대를 여는 생활 필수 어휘. 하우.
- 김완서(2015). 남녘말 북녘말. 현북스.
- 박노평, 김봉기 편(2016). 평양말·서울말: 언어에도 휴전선이. 메인파워(주).
- 이대성, 양수경, 강보선, 이수연(2013). 남북한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인쇄일 · 발행일	2018년 4월 18일
펴낸이	국립국어원장
기획 · 편집	정호성 · 박선
집필	강보선 · 양수경
감수	박노평 · 한용운
제작	(주)더크리홍보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전화	(02) 2669-9715
전송	(02) 2669-9737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



국립국어원